

서구관찰자들의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의도 분석

영국왕립아시아협회 한국지부 연구결과를 토대로

김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종교학 · 한국학 전공
etre@aks.ac.kr

- I. 우리를 서술한 타자의 관찰
- II. 관찰자의 태도와 지향성에 따라 달라지는 조선의 모습
- III. 텍스트 해석의 차이, 조선과 타자
그리고 근대적 담론체계로의 편입

I. 우리를 서술한 타자의 관찰

근대화 과정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오직 현재성에 기반한다거나, 역으로 과거에만 지나치게 치중해 ‘홀러간 옛이야기’로 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과거와 현재는 단절(斷切)과 연속(連續)의 이중의 속성으로 재현되는 사태(事態)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오늘의 시점으로 과거를 해석하고자 할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이른바 근대화의 진행과정을 시간을 거슬러 분석하는 우리의 작업이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한계의 인정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과거 조상들의 삶이 지금 우리가 가진 삶의 내용과 실제 다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정체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 부연하자면 이미 근대화를 경험한 우리와 막 근대화 시기에 접어들고 있던 조선 후기는 인종·언어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달리 내용적으로 상당 부분 ‘다른(異種)’ 사회일 수 있다. 소위 전(前)근대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진입하던 과거의 시점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시점, 이 둘 사이에는 엄밀히 말해 극복이 불가능한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질적 영역까지 논의를 보다 확장하면 존재론적으로 인간에게 시간은 불가역적(不可逆的) 한계로 작용한다. “흐르는 강물에 동시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시간의 불가역성은 인간의 내재적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시간은 우리에게 ‘역사’ 혹은 ‘기억’의 영역으로만 존재한다. 오늘은 과거의 내일이며, 과거는 오늘의 어제이다. 결국 과거의 사건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불변의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기억과 역사라는 개념 역시 순수(純粹) 테제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순수 기억’ 혹은 ‘순수역사’라는 것은 형이상학적 사유의 지평에서나 그 논의가 가능할 뿐, 순수한 기억이나 역사와 같은 명제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억과 역사는 행위자, 즉 주체(agent)가 개입되어 구성되는 것이다. 주체에 의해 가공된 소위 기억과 역사는 또 다른 시대, 다른 주체의 개입에 의해 다시 재현된다. 따라서 과거의 사건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고정된 해석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역사는 이른바 역사적 재료들(documents)을 의미를 가진 사건(monuments)으로 변화시킬(transformed)

수도 있다.¹⁾

근대화가 본격화할 무렵 우리를 찾아온 타자들은 저마다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조선을 이해한 후, 그들의 경험을 텍스트로 재현했다. 이들이 만들어낸 텍스트, 즉 '타자의 시선'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이 이해한 조선의 모습, 그리고 이들이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것'에 대한 서술방식, 나아가 이 과정에 개입된 이데올로기(ideology)의 작용과정이다.

외교, 선교, 사업, 탐험 등 각자 목적에 따라 조선을 방문했던 타자의 경험이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됨으로써, 서서히 조선의 존재가 서구에 알려진다. 그런데 타자의 관점으로 특정 사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타자, 즉 관찰자(observer)는 순수한 객관적 테제로 주어진 현상에 접근하지 않았다. 흔히 제3자로 일컫는 외부의 관찰자는 자신이 나고 자란 특정 문화권의 가치관과 관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근대화 초기, 우리의 모습을 관찰한 타자들은 그들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이 속했던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당시 조선을 인식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구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다.

본질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은 유럽의 자본주의의 확장과 연결되어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서구를 제외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설정했던 서구일반의 독특한 타자이해방식이었다. 결과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은 유럽적 자본주의의 확장이라는 역사적 과정과 이를 수반한 식민지화로 내용과 형식이 구체화된다.²⁾ 결국 외부관찰자가 어떤 의도나 방법론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설명의 형식과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외부로부터 온 관찰자는 단지 개별 문화에 관한 극히 일부분의 지식, 그리고 문화 간 차이에 대한 부분적 이해를 가졌을 뿐, 개별 문화의 완전한 이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가설일 수 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부분적 이해'는 흔히 오해와 과장과 같이 불필요한 잉여담론의 생산으로 이어지곤 했으며, 조선에 대한 외부의 관점도 이와 거의 유사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인식과 타자의 관점, 이 둘 사이의 일치

1) Michel Foucault and Alan Sheridan, *The Archeology of Knowledge*(translated by A. M. Sheridan Smith New York: Pantheon Books, 1969). p. 7.

2) Biray Kolluoglu-Kirli, "From Orientalism to Area Studies," *CR: The New Contential Review*, Vol. 3,3(Michigan State University: 2003), p. 98.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스스로 근대적 정체성을 갖기 전, 자신의 정체성을 타자에 의해 규정당하는(being identified) 경험을 겪었다. 소위 근대 지식체계의 '확장성(expandability)'은 유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빛어온' 고유의 전통문화, 즉 우리의 담론을 그들의 것으로 대체하고, 기존 삶의 방식, 그리고 인식의 내용까지 서구의 지식체계로 흡수했다.³⁾ 구체적 예로 우리가 흔히 '할미꽃'으로 불리는 들판의 평범한 들꽃은 어느새 서구의 한 관찰자에 의해 *Anemone Pulsatilla L.*(*Pulsatilla Koreana*, Nak)라는 학명으로 분류된 후, 생물학(biology)이라는 서구의 지식체계에 수렴되었다.⁴⁾ 우리의 것들이 서구의 인식구조에 자연스럽게 포섭되었고, 서서히 우리는 이 같은 근대지식체계로의 편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⁵⁾

우리 문화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요소(culture elements)들이 문화복합(culture complex)을 이루며 발전해왔다.⁶⁾ 동시에 우리가 가진 선부른 선입견과 달리 우리 문화는 지리적으로 단순히 한반도에 고립된 문화형식은 결코 아니었다. 오랜 기간 중국, 일본 등 외부와의 교류 및 갈등을 경험하며 국제관계가 야기한 외부요인과 한반도 내부의 정치·사회적 변수들이 역동성을 이루며 우리의 문화는 다양한 '스펙트럼(spectrum)'을 형성해왔다.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중국문화의 영향, 그리고 근대화 시기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착종된 일본식 근대담론, 그리고 서구라는 제3자의 개입과 여기에 대응했던 전통담론질서 및 사회적 저항으로부터 파생된 내·외부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정체성은 시대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을 달리했다. 근대 역시 이 같은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특별히 '과거의 우리'에 대한 인식은 정치·사회·역사적 배경의 이해를 토대로 시도되어야 한다.

영국왕립아시아협회 한국지부(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3) 피터 차일즈·패트릭 윌리엄스 저, 김문환 역, 『탈식민주의 이론』(문예출판사, 2004), 216쪽. 사이드가 푸코로부터 차용한 '재현'이라는 맥락에서, 근대적 담론은 세계에 대한 특정한 재현을 생산하는 방식, 즉 담론이 통제하는 엄격한 형식의 문제일 수 있다.

4) A Sister of the C.S.P., "Some Wayside Flowers of Central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18(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29), p. 27.

5) 철학아카데미 편,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철학』(동녘, 2013), 45쪽.

6) 이광규, 『새로운 민족관의 수립을 위하여』(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35쪽.

the Royal Asiatic Society)에서 발간된 ‘일차자료’는 무엇보다 ‘조선’과 ‘조선적인 것’의 정의(definition)조차 수립되지 않은 매우 척박한 시기, 조선을 소개하는 다양한 주제를 나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⁷⁾ 이와 더불어 영국왕립아시아협회 한국지부의 논문들이 쓰여진 시점이 다른 아닌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체제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영국왕립아시아협회가 수행한 본 연구는 상당한 용기와 특별한 사명감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점 역시 평가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기본적으로 백과사전(encyclopedia)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당시 서구에서 백과사전의 일차 간행목적은 정보제공이었다.⁸⁾ 동시에 이 같은 출판형식은 경험론에 입각한 당시 영국지식인 사회의 경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영국왕립아시아협회 한국지부의 모든 연구 성과를 이 짧은 논문에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고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텍스트가 가진 주요 논점은 무엇이며, 텍스트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시대·문화적 지배담론, 나아가 이 같은 태도의 배후로 작용한 이데올로기의 해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관찰자의 태도와 지향성에 따라 달라지는 조선의 모습

본 연구에서 필자의 주요 관심사항은 영국왕립아시아협회 한국지부 자료를 중심으로 무엇보다 근대화 담론이 우리를 어떻게 서술하고 규정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우리의 자연, 지리, 언어, 예술, 정치, 군사, 경제, 식생활 등 과거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떤

7) Horace H. Underwood,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20(Seoul: Y.M.C.A. Press, 1931), p. 1. "The chief difficulties naturally lay in the lack of any previous work of this type and in the lack of the materials for such a study which would be available in other countries."

8) Horace H. Underwood(1931), 위의 논문, p. 3. "The Encyclopedia Britannica defines Bibliography as the art of examination and description of books, and their enumeration and classification in lists for purposes of information."

방식으로 이른바 근대지식체계에 포섭되었는지, 이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타자의 관찰 결과, 즉 우리의 과거를 읽어내는 타자의 서술형식과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소위 근대지식체계의 형성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텍스트 분석과 관련하여, 필자는 특별히 텍스트 근거에 자리하고 있는 서구 오리엔탈리즘의 작용과 논문 저자 개인의 관점에 주목하고 있다. 은둔(隱遁)의 왕국, 조선을 외부로 알리기 위한 기획의 일환으로 조선사회와 조선인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근대지식체계의 방법론으로 읽어내고자 했던 타자들의 시도는 겉으로는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개별 저자의 문화적 배경, 선입견, 지향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위 객관적 지식이 자의적으로 서술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 개별 저자의 입장에 따라 텍스트가 때론 과장되거나 심지어 왜곡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 같은 타자의 일방적 서술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유의할 사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타자들로부터 발견되는 오리엔탈리즘의 작동기제이다.

타자의 인식 태도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타자, 달리 말해 서구의 정신은 인식주체와 인식객체, 자아와 타자는 분리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한 이원론하에서 객체로서의 타자는 주체가 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고정된다. 타자를 고정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주체는 타자를 재현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대립구조는 주인과 노예의 위계질서를 갖춘 권력구조가 되며 타자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해준다. 나아가 타자와의 관계는 타자를 폭력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된다.⁹⁾

나(自)와 대상을 이원화하고 자신의 내부로 타자를 수렴하는 서구의 이원론적 태도는 보편적으로 제국주의 시대 서구가 타자를 이해했던 인식의 준거(準據)였다. 이들이 해석을 시도한 과거 조선 역시 타자의 대상 중 하나였음은 자명하다. 당연히 인식과정에서 타자의 일방성은 유무형의 폭력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로 작동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근대화 초기 조선인을 서술하는

9) 최중천, 『탈식민주의 문화 이론의 해체론적 접근: 바바와 테리다를 중심으로』(범한철학회, 2011), 395쪽.

프랑스인들, 보다 범위를 넓힌다면 당시 유럽인들의 인식구조에서 전형적 이원론이 발견되고 있다. 프랑스어의 대화문에 사용되는 인칭대명사의 활용과 관련하여, 당시 조선을 소개한 프랑스 자료에서 독특한 점이 발견된다. 의사소통의 담화상대로서 일반적인 인칭대명사 주격, ‘Tu(너)’의 존칭인 ‘vous(당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il(그) ils(그들), les gens(그 사람들), ce(le) peuple(이 민족, 그 민족), les coréens(조선인들)’라고 하여 조선인들을 대상화·타자화하고 있다. 이는 철저한 거리두기에 놓인, 화자와 관찰대상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관찰은 시종일관 화자의 관점에 의한 외적 시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조선인에 대해 ‘comme, paraître, sembler, on dit’ 같은 표현들로 설명된다는 점은 이들과 조선인들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부재하다는 점을 의미하며, 동양에 대한 진지한 의식이 아닌 서구에 의해 정의되고 이해되며 기능하는 타자로서 존재하는 인식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¹⁰⁾

과거 조선을 서술했던 여타 타자의 시선과 태도 역시 대부분 이와 유사했다. 서구인들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문화적 기준으로 가치판단을 시도했다. 이를테면 침대를 사용하는 서양의 생활양식과 달리 온돌에서 지는 조선인들을 미개하고 불결한 존재로 간주한다든가, 서양음식은 문명인의 것인 반면 조선의 음식들은 미개인이나 먹는 냄새나고 이상한 것이라는 기술 등이 그러하다.¹¹⁾ 유사한 맥락에서 서양인의 조선관(觀)은 조선에 관한 경험과 이해의 깊이, 일본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풍부한 서양인들은 상대적으로 조선인과 조선사회의 역동성을 신뢰하거나 일본의 보호국화에 반대하는 편에 가까웠고, 반면 조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본을 통해 조선에 접근한 서양인일수록 조선사회의 정체와 민족성 타락을 강조하거나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를 옹호하는 입장에 더 다가서 있었다.¹²⁾

조선의 근대화는 지난(持難)한 과정이었다. 소위 근대성(modernity)은 전(前)근대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대화 과정에서 기존 사유방식

10) 김귀원, 『구한말 프랑스문헌에서 군인 및 외교관이 본 조선의 이미지』(조선프랑스학회, 2004), 434쪽.

11) 김보림, 『개항기 재조선 서양인의 일상생활과 조선문화 인식의 분화』(역사교육연구회, 2013), 22쪽.

12) 김보림(2013), 위의 책, 31쪽.

과 문화는 자연스럽게 장애물로 여겨졌고, 심지어 극복의 대상이었다.¹³⁾ 유감스럽게도 주체적으로 근대화를 실현하기보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시작된 조선의 근대화는 결과적으로 철저히 폐쇄된 체제 아래 왕(王)을 정점으로 사농공상(士農工商)에서 천민에 이르는 철저한 계급구조 사회였던 조선사회를 형식과 내용에서 전적으로 전도(顛倒)하는 일대 변혁의 소용돌이로 이끌게 된다.¹⁴⁾ 우리의 근대화 과정을 단순화한다면, 사농(士農) 중심의 농경사회로부터 공상(工商) 중심의 산업사회로의 급진적 변동이라 말할 수 있다.¹⁵⁾ 그런데 우리에게 ‘근대화’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통과의례(passage rite)’는 아니었다. 철저히 타자의 의도에 의해 기획, 실행된 우리의 근대화는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이라기보다 외부로부터 촉발된 ‘압력’의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외부권력은 이른바 전근대적 개인들에게 일사불란한 근대화의 동참, 다시 말해 신속한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개인적 발전’을 강요했다.¹⁶⁾ 하지만 당시 우리 사회의 태생적 한계는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게 된 소위 근대적 개념들을 생성하고 해체한 주체적 경험이 전무(全無)했다는 점이다. 결국 근대지식체계는 우리의 담론을 재현(representation)한다는 미명하에 아예 우리의 담론체계를 근대 체계로 대체(replacement)하고자 했다.¹⁷⁾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것’이 서구의 인식구조에 자연스럽게 포섭되었고, 우리는 서서히 근대적 지식체계로의 편입을 언제부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간혹 “우리의 과거가 낯설다”라는 느낌이

13) 김교빈, 「동아시아 근대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시대와 철학』 제21권 제4호 (2010), 85-86쪽.

14) 이순애, 「근대성, 합리와 비합리성의 변증법」, 『담론 201』 제13권 제1호(2010), 10쪽. 그러나 신분제 사회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 자기 계몽의 용기를 발휘해야만 하였다. 하지만 구성원으로 계속 살아가는 일은 계몽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시민사회가 여전히 위계질서에 의존하기 때문이고, 사회조직 내의 권위주의 역시 여전히 때문이다.

15) 강신표,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적 민족지』(세창출판사, 2014), 128-129쪽.

16) 미셸 푸코 저, 박혜영 역, 『정신병과 심리학』(문학동네, 2002), 55쪽. 발달 속에서 과거는 현재를 승격시키고, 현재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역사 속에서 현재는 과거에서 떨어져 나와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인식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심리적 변천은 발달이며 동시에 역사다.

17) 피터 차일드·패트릭 윌리엄스 저, 김문환 역(2004), 앞의 책, 216쪽. 따라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푸코로부터 차용한 ‘재현(representation)’은, 근대적 담론이 세계에 대한 특정한 재현을 생산하는 방식, 즉 새로운 담론이 통제하는 형식의 등장일 수 있다.

들 때가 있다. 연구과정에서 원(原)자료라 할 수 있는 텍스트들을 접하며 느끼는 낯선 경험이 바로 그런 점인데, 어느새 우리는 서구인들, 즉 타자의 것과 유사한 관점으로 우리의 과거, 우리 조상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 분명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시간·역사·인종·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타자의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과거가 낯설게 다가오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일까? 오늘의 우리는 결국 근대식체계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근대적 사고의 ‘틀’ 안에서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옛것을 신기하고 낯설게 느끼는 결정적 이유라 할 수 있다.

1. 피(被)관찰자 조선을 해석한 현상학적 태도, 판단중지(epochee)와 감정이입(empathy)

조선을 관찰했던 외부관찰자들은 물론 당시 조선인들에 비해 근대화에 대한 경험의 밀도(density)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이들 또한 조선을 보편문화담론이나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보편적으로 개별 문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하나는 보편적 차원에서, 또 다른 하나는 다원적 차원에서 문화를 인식하는 것이다.

보편적 차원에서 문화는 ‘총체적인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에서 문화는 인간이 갖는 제도와 생활의 실천 모두를 의미한다. 반면 다원적 차원에서 문화는 여러 삶의 방식에 존재하는 ‘차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된다. 하지만 문화를 이 두 가지 차원 중 어느 하나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문화는 이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문화는 인간의 삶과 행위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나 범주이자 동시에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경험의 내용이다. 문화는 보편적이면서 다원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는 문화주의적 접근방식도 필요로 하고, 동시에 구조주의적 통찰도 요구하고 있다.¹⁸⁾ 결국 우리의 ‘옛 사회’와 ‘옛 문화’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피상적 이해의 수준을

18) 권수현, 『문화철학과 자율성』(철학과 현실사, 2008), 70-71쪽.

넘어 당시 문화담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해당 문화를 창출했던 과거 사회의 구조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과거 조선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현상학적 태도로 우리의 자연환경, 삶의 모습, 문화 등을 판단중지(epochee)한 후 일관하는 순수관찰자의 태도가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의 역사, 정치, 제도, 사회현상 등에 감정이입(empathy)되어 연민(compassion) 혹은 계몽(enlightenment)의 당위적 의무론을 은연중, 혹은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주관적 관찰자의 태도가 있다. 그러나 다소 이분법적 도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 같은 ‘구분’이 반드시 일차자료를 이해하는 필수불가결한 방법론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주어진 현상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판단중지의 서술에서도 주관적 판단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주관적 관찰자의 태도 역시 현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생략된 채, 일방적 이데올로기만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텍스트 해석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논문 저자의 직업, 소속, 방문목적, 개인적 가치관 그리고 출신국가 배경 등에 따라 이들이 서술한 텍스트를 크게 두 가지 서술구조로 구분하는 방식을 지나친 내용적 비약 내지 환원주의로 볼 수만은 없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텍스트에서 관찰자 개인의 선택과 입장에 따라 서술 주제와 형식, 그리고 텍스트의 지향성이 달라지는 내용적 독특성(singularity)을 담지하게 된 일차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일차자료인 텍스트 자체의 한계에 유의할 필요도 있다. 일차자료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의적 해석, 피상적 접근, 환원주의적 성향, 조선문화를 일본과 중국문화의 이류쯤으로 설명하는 불완전한 지식, 여기에 저자 개인의 왜곡된 선입견의 개입 등, 텍스트 자체의 내용적 한계도 실제 상당 부분 존재한다. 정신·물질문화와 상관없이 ‘우리 것’에 대한 몰이해가 상당수 발견되는 것은 분명 텍스트의 완성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¹⁹⁾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일부 저자들이 조선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은 그 당시

19) Charles Hunt, "Some Pictures and Painters of C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19(Seoul: Y.M.C.A. Press, 1930), pp. 3. "China, Persia and Japan may have influenced Korean Art,"

시대상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덧붙여 상기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 개인의 관심 정도도 개인에 따라 분명 차이가 있었다는 점 역시 고려할 사항 중 하나이다.²⁰⁾

영국왕립아시아협회 한국지부는 각 논문마다 세부주제를 설정하고 동시에 범주화(categorization)를 통해 형식구조를 정식화하고 있다. 광범위한 세부주제에서 드러나고 있는 텍스트의 특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백과사전’ 형식을 원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조선의 다양한 생태계를 통해 유럽인들의 이국적(exotic) 향수를 자극하는 목적이 드러나는가 하면, 금광과 같이 실제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즉시 연관될 수도 있는 실용적 내용도 등장하고, 당시 조선의 정치·외교 상황과 같이 예민한 주제가 등장하는 등, 전체적으로 텍스트가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각 저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실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 가운데 일차적으로 우선 게일(Gale)의 “THE KOREAN ALPHABET (By Rev GALE, D. D.)”는 텍스트의 성격상 전형적인 현상학적 관찰자 텍스트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판단중지를 지향하고 있는 게일의 “THE KOREAN ALPHABET (By Rev GALE, D. D.)”에서도 그가 속했던 시대의 이데올로기, 오리엔탈리즘의 개입이 발견된다. 게일은 “알파벳 또는 문자체계의 존재유무는 바로 문명인과 야만인을 나누는 기준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비서구와 달리 문자가 존재하는 서구(유럽)의 우월성을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다.

Europe is in possession of the past through the blessing of an alphabet.”
(James S. GALE, “The Korean Alphabet,” 1912.)

“유럽은 알파벳의 축복을 통해 과거의 영화를 누렸다.

이어서 그의 논지는 일관성 있게, 문자체계의 존재유무를 인종의 우월과 열등을 구분하는 척도로 제시한다.

I mention this to bring to your attention the importance of so wonderful

20) Horace H. Underwood(1931), 앞의 논문, p. 14,

“I am much impressed with the fact that we have a wealth of material before us and a wealth of talent in our midst and are doing relatively little to apply our power to our problems.”

an invention. Without it, and its help, We should have been left the tribes of the central Africa, or the natives of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James S. GALE, "The Korean Alphabet," 1912.)

나는 여러분에게 (문자체계)의 놀라운 발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점을 언급한다. 문자와 문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앙아프리카의 부족이나 북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으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당시 제일의 한글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는 스스로 통일된 한글맞춤법 기준조차 없었고, 거기다 한글로마자 표기도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언어학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선교사 출신 필자가 이 정도 수준의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은 경이로울 따름이다.²¹⁾

Like all alphabets, ŏnmun is not a perfect phonetic medium, but it represents the pronunciation of the Korean Language with considerable exactness. (G. M. McCune and E. O. Reischauer,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1939, p. 3.)

모든 알파벳들과 마찬가지로, 언문은 완벽한 음성학적 매개는 아니지만 언문은 조선어의 발음을 굉장히 정확하게 표시했다.

The letter are either borrowed words from the Chinese, but pronounced in the Korean manner.

In the past, men of learning avoided the use of ŏnmun as far as possible because they considered it to be too vulgar for the educated.

Language with considerable exactness. Although invented and first employed in the fifteenth century, not until recently has it come into general use among the educated classes. (G. M. McCune and E. O. Reischauer,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1939, pp. 4-5.)

문자는 한자로부터 차용되었지만 조선식으로 발음되었다. 과거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언문을 사용하는 것을 기피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문이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저속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언문은 엄청난 정확성을 지닌 언어였다. 비록 15세기에 창제되어 사용되었지만, 최근까지도 식자층에서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계일은 한글의 로마자 표준화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일본식민체제

21) G. M. McCune and E. O. Reischauer,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Vol. 29(1939), p. 1. No standard Romanization has been adopted for Korean.

공식 언어인 일본어(日本語)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가진 언어적 의미와 한글의 로마자 표준화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As Japanese is now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land, few Occidental scholars will feel that it is wise to ignore the existence of the Korean language in place of the Korean. (G. M. McCune and E. O. Reischauer,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1939, p. 3.)

일본어가 현재 조선의 공식어라고 해서 조선어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하는 서양의 학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Despite the fact that most of the scholarly works and reference books on Korean are now appearing in Japanese, few Occidental scholars will feel it is wise to ignore the existence of the Korean Language. (G. M. McCune and E. O. Reischauer,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1939, p. 3.)

조선어에 대한 대부분의 학문적 연구와 참고문헌들이 현재 일본어로 출간된다고 해도 조선어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하는 서양의 학자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같이 한글의 탁월함을 서술하고 있는 게일 역시 명백히 오리엔탈리즘과 인종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가졌던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지금의 기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게일 역시 교육을 통한 고정관념의 확대재생산, 당시 서구 제국주의 거대 서구지식체계의 소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게일 개인은 자연스럽게 그가 속한 국가의 문화적 관성을 가지고 조선에 온 여러 서구인들 중 하나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당시 서구가 가지고 있던 인식의 준거가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시 서구의 인식체계는 문자를 갖고 있지 않는 민족을 미개인으로 규정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보편인식론이 내부에 작동되고 있었다. 덧붙여 대부분 '조선', '조선인' 그리고 '조선의 것'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판단중지를 지향하는 논문들 가운데도 외형적으로는 순수학술 연구를 표방하고, 조선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 그리고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특정 이데올로기 개입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타자들이

선택한 소위 객관적 주제들은 형식적으로는 사실(fact)을 서술하는 듯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과도한 주관적 판단을 개입시킨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이 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아래의 논문이다. 주어진 논문은 가치판단을 배제한 채 순전히 조선의 선박과 조선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에 기초한 논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논문 저자는 형식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서술하는 듯 보이지만, 선박건조라는 객관적 서술 이면에 개인적 선입견을 개입시킨 후 조선의 후진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결국 서술주제와 상관없이 저자의 숨겨진 의도나 왜곡된 개인적 선입견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이 선박건조가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또한 스스로 목공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신이 선박건조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주제넘는 것이라고 밝히며 독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그러나 무지에 대한 양해를 구하자마자, 그는 바로 조선의 선박건조기술이 과학에 근거한 적이 없었으며, 단정적으로 미개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저자는 유럽의 사례를 원용해 선박건조기술이 언제부터 과학에 근거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자와 킴퍼스를 활용한 설계에 따라 배를 건조 중인 장면이 묘사된 16세기 중반 유럽의 삽화를 근거로 적어도 유럽은 16세기 중반부터 선박건조기술이 과학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조선의 경우에는 해상문제에 관한 수많은 회고록을 보면 조선의 배는 규칙 없이 건조자의 기분에 따라 자의적으로 건조되어 불만이 많았다는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조선의 선박기술은 유럽과 달리 과학에 근거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또한 저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에 모순되는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며, 동시에 조선의 선박건조계획과 선박규모를 설명하는 수치의 존재를 언급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비논리적 서술을 전개한다.

선박 건조자도 목공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자가 배의 건조방법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의심할 여지없이 주제넘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방형비척계수, 세로메타센터, 가로메타센터와 같은 (조선공학) 용어 같은 것들은 완전히 내 능력 밖이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하겠다. 더 나아가 나는 최근에서야 스카핑, 노칭, 턱과 같은 목수 기술들에 대해서 최근에서야 기본적인 것만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조선에서 선박건조는 과학으로 수렴된 적이 없으며, 정확한 설명서, 계획보다는 명백히 주먹구구

식으로 이루어졌다. 유럽에서 선박건조기술이 얼마나 일찍 과학화되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피프스(Samuel Pepys, 1633-1703)의 일기에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삽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삽화 속에 선박 설계자가 그의 조수들과 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의 설계도는 책상 위에 펼쳐져 있고 그는 컴퍼스와 자를 가지고 작업한다. 하지만 조선에는 그러한 발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 같다. 그 근거로 왕의 회고록에 해상문제에 관한 주요 불만 중 하나가 조선의 배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건조되는 것이 아니라 건조자의 기분에 따라 건조된다는 수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나는 설계도나 표준화된 설명서의 존재를 드러내줄 수 있는 다소 불분명한 유일한 참고자료를 하나 찾을 수 있었다. 1686년 이치원이 조선 해군에 대하여 비판을 했다. 이 비판에 대하여 김수홍이 조선 해군선의 규모는 이순신 장군 시절의 공식적인 명령에 의해 정해졌고 이미 승인된 규모에 대한 변화는 오직 혼란과 재난을 초래할 뿐이라고 대응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설계도들이 얼마나 명확하고 상세했는지 알 수 없고, 다른 참고문헌들은 그저 설계도가 가장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믿게 만들 뿐이다.²²⁾

22) Horace H. Underwood, "Korean Boats and Ship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23(1934), pp. 22-23.

“인용한 기록에서 1686년 이치원이 조선의 수군에 대해 비판을 하자 이 비판에 대해 김수홍이 조선 해군 선박의 크기(규모)는 이순신 장군 시절 이미 정해졌으며, 이 크기에 변화를 가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기록에 대해서 저자는 이 선박의 수치가 얼마나 명확한지 알 수 없지만 다른 기록들을 참고할 때 우리는 그 수치들이 불명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일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For one who is not a marine architect and has very little knowledge even of carpentry to attempt to discuss or describe methods of ship construction doubtless presumptuous. I must frankly confess that such things as block coefficients, longitudinal and transverse meta centers [...] are utterly beyond me. I will go further and admit freely that I have only the barest and most recently acquire acquaintance with scarfing, notching, cogging and their brethren of the carpenter's art. Ship-building in Korea has never been reduced to a science and apparently has always been done by rule of thumb rather than exact specifications, plans, or lines. How early the art began to be reduced to a science in Europe it is difficult to say but the Pepysian diary contains an illustration dating from the latter half of the 16th century, in which a ship designer is shown at work with his assistants. His plans are laid out on a drawing table and he is at work with compass and rule on the plans for a ship. It seems evident, however, that no such development existed in Korea for there are numerous memorials to the king on naval matters in which one of the chief complaints is that Korean ships are built by no rule but according to the whim of each builder. I have found only one rather indefinite reference which might indicate the existence of plans or uniform specifications. In 1686 Yi Chi Won made certain criticisms of Korean navy. In answer to this Kim Su Hung in addition to other arguments, stated that the dimensions of Korean naval vessels had been fixed by official order in the days of Admiral Yi Sun Shin and that changes in these approved dimensions could result only in confusion and disaster.

텍스트 해석과 관련하여 필자는 자신의 태도와 관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논문 저자들을 ‘주관적 관찰자’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른바 주관적 관찰자들의 텍스트에는 그들 앞에 주어진 현상의 분석과정에서 개인의 가치관, 서구의 보편관념, 종교적 정체성, 관습, 그리고 조선에 대해 개별 주체가 가졌던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텍스트마다 독특한 내용적 차별성이 재현되고 있다. 결국 조선에 대한 저자 개인의 입장, 다시 말해 저자의 사회·정치·종교적 배경에 따라 관심사가 우선적으로 정해졌고, 이 과정에서 특히 주관적 관찰자는 텍스트를 특정 목적에 따라 배열하고, 논지를 전개해가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조선을 서술한 타자의 텍스트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문화에 대한 그들 나름의 평가를 담고 있다. 관찰자들의 평가는 때로는 연구주체에 따라 상당히 객관적 서술방식으로 서술되기도 했지만, 간혹 저자 개인의 태도에 따라 주관적·객관적 평가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사적 의도나 관심사, 가치관, 직업, 지적 수준, 체류목적, 출신문명권에 따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조선사회를 ‘부정적’ 혹은 ‘긍정적’, 또는 ‘가치 있음’과 ‘가치 없음’이라는 이분법적 판단준거로 평가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타자의 관찰 결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필자가 속했던 개별 문화의 고유한 특성과 연구자 개인의 성향까지 모두 고려하는 다층위적·다면적 해석과정이 요구된다.

한편 주관적 평가와 판단이 두드러지는 일차자료 가운데 몇 가지 흥미로운 쟁점이 발견되는데, 조선과 미국 사이 국지전(局地戰)이라 할 수 있는 1871년의 신미양요(辛未洋擾)를 당시 미국 측에서는 국가 간 전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는 텍스트가 그중 하나이다. 분명 조미(朝美) 양국 사이 전쟁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미국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주권국가 중국의 일부에 불과한 조선(the domination of China)과의 물리적 충돌을 전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자료는 당시 조선의 주권에 대한 서구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I hesitate to caption the event of 1871 a Naval Expedition and much less an American-Korean war, as some writers have been bold enough to do. Both these are misnomers and do injustice to the actual facts. It was not

a war.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an oft. quoted sentence laid down the following definition of war: 'Every contention by force between two nations in external matters, under the authority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 is public war.' I do not believe for one moment that the facts of the Naval Incident of 1871 warrant us in affirming that it was a war. Therefore, the writer prefers to used the term, Naval Incident.

In the first place,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China, whose suzerainty over Korea was ever questioned, made declaration of war.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Korea had been under the domination of China for centuries. (E. M. Cable, "The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1866-1871," 1938, pp. 1-2).

나는 1871년의 사건을 해군원정으로 설명하기를 주저하며 그 일을 미국과 조선 사이의 전쟁으로 명명하는 것은 더 꺼린다. 몇몇 저자들은 대담하게도 그렇게 해왔지만 말이다. 해군원정이나 미한전쟁이라는 말은 둘 다 부적절한 명칭이고 실제 사실을 오해한 것이다. 1871년 사건은 전쟁이 아니었다. 미국의 대법원은 자주 인용되는 한 문장 속에 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외부 문제에 있어서 각각의 정부의 지배 아래 두 국가 사이의 무력에 의한 모든 분쟁은 전쟁이다. 나는 단 한 순간도 1871년의 사건이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해상 사건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 우선 미국도 중국도 종주권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전쟁 또한 선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조선이 수세기 동안 중국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을 가진 다른 자료에서도 당시 미국정부가 조선정부와 직접협상이 불가능했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조선과의 협상과정은 반드시 중국을 통해 간접적 방식으로 진행해야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조선의 주권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당시 약소국이었던 조선의 정치적 한계에 대한 저자 개인의 견해를 확인함과 동시에 조선을 둘러싼 주변국의 정치·외교적 역학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Another fact which made it very difficult to deal directly with Korea in this matter was that she was not an independent nation, and all negotiations had to be made through China, of which Korea was then a tributary state. Such negotiations meant long delay and great embarrassment.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Oriental countries, such as China and Korea at the time of the General Sherman Affair, were very slow and required consummate patience, shrewd political sagacity and diplomacy. (E. M. Cable, "The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1866-1871," 1938, p. 65.)

이 문제에 있어서 조선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사실은 조선이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것과 모든 협상이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조선은 그 당시 중국의 속국(屬國)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상에는 오랜 지연과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이 수반된다. 서면호 사건 당시 중국과 조선같은 동양 국가들과 외교적 협상은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렸고 엄청난 인내와 기민한 정치적 지혜 및 외교적 수완을 요구했다.

조선을 관찰한 타자의 시선은 특정 가치관이나 제한된 목적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하는데 객관적 또는 주관적 태도와 관계없이, 말 그대로 기존의 것과는 '결이 다른 형태의 텍스트들이 우리 내부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타인의 증언이지만, 중국의 속국이라는 정치적 굴레를 벗어버린 조선은 이제 조금씩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근대국가로 자리매김하길 원했던 조선은 이제 명실상부한 근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 정치적으로 중국과의 '거리두기'는 이제 조선이 독자적 주권국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당시 근대화를 지향하는 조선은 타국과의 외교관계 수립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조선이라는 국호 앞에 대(大)라는 접두어를 삽입하는 과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Together We have come to Your Excellency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ah(大) Cho Sun. We desire to convey to our sincere wishes for the health and welfare of Your Excellency and the United States. (Harold J. Noble, "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1883," 1929, p. 9.)

우리는 대(大)조선 정부의 대표로서 각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건강과 미합중국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같은 텍스트의 내용적 변화는 조선의 개국시기부터 중국으로부터 하사받은 '조선(朝鮮)'이라는 국호가 갖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 나아가려는 조선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 관찰자의 텍스트가 특정 사회의 미묘한 정치·사회적 변화를 해석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텍스트에서도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정치권력 내부의 정치적 변동성에 대한 서술이 다수 등장하고 동시에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도 발견되고 있다. 노블(Harold J. Noble)이 쓴 “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1883”에서 논문 저자는 당시 조선내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다수 피력하고 있는데, 이 중 유길준에 대한 저자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상당히 흥미롭다.

You Kil Chun spent some time in prison after the emeute. He grew to be the leader in the Tai Wun Kun's party, and took an active part in the conspiracy which brought about the murder of the Queen. He was clever, vindictive, and cruel, and stop at nothing to further his own interests. (Harold J. Noble, “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1883,” 1929, p. 19.)

유길준은 반란 이후 상당 기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는 대원군 측의 지도자로 성장해서 명성황후의 살해를 야기한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는 영리하면서도 복수심이 강해 잔인한 면이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았다.

또 다른 주관적 텍스트저자 가운데 하나인 헐버트(Homer Hulbert)의 논문은 조선의 정체성과 관련, 중국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종일관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게일의 연구주제와 유사한 한글 관련 내용이 등장하지만, 헐버트의 논문은 저자 개인의 입장과 논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대표적 논문 중 하나이다.

조선의 왕 세종은 1406년 금속 활자를 주조하라고 명했다. 이것은 한자였지만 세종은 또 백성의 교육을 가능케 하는 음성 문자를 만들도록 명했다. 왕의 이러한 명령은 세계 어느 나라 언어와 비할 수 없이 간결하고 음성적인 문자를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만큼 훌륭하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상위계층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다. 첫째로 문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지극히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눈으로 익혀버린 중국의 문자체계를 쉽게 버릴 수 없었다. 둘째로 중국 문자를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는 상위와 하위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었다. 정리하자면 중국 문자의 사용이 계속 유지되었던 것은 첫째, 지적 내성과 둘째, 카스트 성(신분차별)의 편견이었다. (Homer Hulbert, “Korean Survivals,” 1900, pp. 32-33.)

‘한글’에 관한 헐버트의 분석은 현재 한글학자와 역사학자들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글이 가진 언어적 우수성을 서술하며, 동시에 지배자의 문자인 한자(漢字)와 백성의 문자 한글이 조선사회 내부의 계급구조에

의해 이론적으로 어떻게 분리되어 사용되었는가를 헐버트는 객관적 사료를 토대로 서술하고 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렇기에 특정 민족의 언어이해는 곧 개별 민족의 이해일 수 있다. 헐버트는 영어와 한글의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한글의 독특성을 밝힘과 동시에 중국의 문자인 한자와 한글의 차이점을 뚜렷이 부각시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어적 차이를 토대로 중국과 구별되는 조선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헐버트 개인의 주제의식이 텍스트 전체를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저자 헐버트의 연구 목적은 중국과 차별화되는 조선과 조선문화의 ‘독창성’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Korean Survivals”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헐버트의 입장이 전개되고 있다.

앞에서 조선의 언어가 중국 것과 혼합되어 변형되었다고 했는데, 그 변형은 그 종류와 정도 면에서 영어에 대한 로만스 언어의 것과 동일하다. 시간상 차이는 있어도 그 성격 면에서는 동일하다. 중국 언어가 조선 언어에 어떠한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영향력이 시작했을 당시 조선은 이미 중국의 문자체계와 현저히 다른 매우 굴절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영국 제도의 경우를 보면, 노르만 정복 당시 영국 내에는 정복자들의 언어와 달리 매우 굴절된 언어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두 언어 사이의 구별은 모든 문자체계 개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영국 제도에 대한 유럽의 영향력 모두 단지 새로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차용하는 것과 언어에 유연성과 품격을 더해줄 동의어들을 가져오는 것이 다였다. 두 경우 모두 법적, 계층적, 과학적, 문학적 용어들을 가져온 것이지, 일반적으로 쓰이는 보통의 단어들은 비교적 변형과정이 자유로웠다. 물론 많은 중국 용어들이 즉시 치환될 만한 조선 용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로 수천 개의 흔한 조선어 단어들이 바로 치환될 만한 중국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조선어에서 특별히 풍부한 ‘의성어’들은 절대 어떠한 중국 단어로 축소되거나 유의어로 대체될 수 없다. 필자는 엄청난 양의 조선어 단어들이 외국어가 아닌 고유의 토착어에 기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각이 먼저고, 단어는 그다음이다. 조선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한 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음성적 상징이 단지 필요했던 것뿐이다. 모든 신약이 조선어로 번역되고 한글로 쓰여진 것은 조선인들이 단지 더 어려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자가 필요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Homer Hullbert, “Korean Survivals,” 1900, p. 34.)

기본적으로 저자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저자의 태도는 명확하다. 필자는 일정부분 조선이 중국의 정치·문화적 영향력하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이 ‘조선적인 것’, 다시 말해 조선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반도에서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담지한 채, 올곧이 살아오고 있었다는 점을 더더욱 강조한다. 이와 함께 중국문화의 거대 문화권력하에서도 자신의 색(色)을 잃지 않고 살아온 조선만의 문화적 가치를 정작 조선인들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저자 헐버트가 개인적으로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를 열망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저자의 관점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²³⁾ 한 걸음 더 나아가 헐버트는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영국 제도에 대한 유럽 대륙의 영향력과 거의 흡사하다는 유비추론을 시도한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조선과 영국의 제도가 유사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유럽 대륙이 보다 유사하며, 두 경우 모두 인과법칙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헐버트는 조선 내 중국혈통의 유입과 혼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혼합은 천여 년 전에 종결되었다. 왜냐하면 만주와 몽골의 침입이 조선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동일하게 영국 안에서도 거의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졌다. 확실히 조선 내의 중국 혼합보다는 영국 내 노르만족의 혼합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

23) 영국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Homer Hulbert Biography』, 2013년 2월 13일(raskb.com/blog/2013/02/13/homer-hulbert-biography, 검색일 2017년 9월)
 “호머 헐버트는 대한민국의 독립에 기여한 공으로 조선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외국인 중 하나다. 헐버트는 1863년 1월 26일 미국 버몬트의 뉴헤이븐에서 출생했다. 1884년 다트머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니언 신학대학에 입학, 공부하던 중, 조선의 고위관료 자제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원어민 선생님을 보내달라는 조선정부의 요청을 받고 1886년 서울에 부임하게 된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고위 관료 자제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한계에 부딪힌 헐버트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후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감리교에서 세운 the Trilingual Press에서는 편집장으로 일하며 조선의 문화와 삶에 대한 기사들을 쓴다. 1897년에는 국왕의 부탁에 따라 왕립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했으며, 1901년 헐버트는 The Korean Review를 창간하고 한글교육이 널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한다. 그와 관련, 가장 논란을 일으킨 그의 주장은 조선이 일본을 계몽과 사회진보를 위한 원천과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이상적인 견해였다. 일본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견해는 한동안 지속되었으나, 1905년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을 The Korean Review지를 통해 분명히 비난하였고, 1906년 대한제국으로 돌아와 국왕으로부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 대한제국독립의 정당성을 호소해주길 부탁받는다. 이후 헐버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선의 독립을 향한 조선인들의 열망을 지지하고 옹호하였다. 1949년 마침내 그는 그토록 그리던 조선으로 다시 돌아왔고, 도착 일주일 뒤 생을 마감했다.”

한마디로 조선인을 타 민족과 구분하고자 하는 저자의 주장은 시종일관 변화가 없다.

조선인들이 중국의 의복을 모방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전 세계 기독교국가 몇 세기 동안 이 문제에 있어서 파리의 재단사, 제조사 집단에게 의복코드를 강요받아 온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현재 조선은 의복에 관해서는 영국이 유럽 대륙에 매여 있는 것에 비교해 훨씬 중국으로부터 자유롭다.

조선은 이천 년 혹은 그 이상 중국이 종주국임을 인정해왔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복종이라는 것은 단지 피상적인 것일 뿐이다. 영국인들이 그랬듯, 조선인들도 정치적 독재자보다는 지적 계몽을 이룩할 수 있는 훌륭한 원천으로서의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지역적 한계에 부딪힐 정도로 조선을 그들의 종주국으로써 억압하지는 않았다.

만약 외국의 것을 단순히 빌려오는 것이 빌려준 자에 완벽한 순응을 뜻한다면, 우리는 영국이 유럽 대륙에게, 그리고 조선이 중국에게 완전히 굴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도 영국이 굴종을 보였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조선도 마찬가지다. 중국 문물의 단순한 차용이 조선인들을 중국인과 비슷한 성품과 특성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다. 중국인들은 실용적이며, 침착하고 냉정하며, 계산적이고 검소하며, 정책에 입각하여 정직하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한다. 반면 조선인들은 쾌활하고 낙천적이며, 태평하고, 근근이 먹고살며, 의도가 있을 때는 관대하며, 절약하지 않고 정직하다. 또한 조선인은 자연을 매우 사랑하여 산을 오르거나 냇가를 거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나는 책이나 지인과의 대화 등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좋아하는 중국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은 중국과 확연히 구분되는 조선만의 특징이다. 조선 설화의 풍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거기서 유교, 불교, 또 토속적 아이디어의 융합을 찾아볼 수 있다. (이상의 인용문 출처는 Homer Hulbert, "Korean Survivals," 1900, pp. 36-38.)

조선인의 삶과 관습을 상세히 공부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유래된 것들을 찾기란 참 쉬운 일임을 말하고 싶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배웠던 대로 조선인들의 삶이 중국인들의 삶의 완벽한 복제물에 불과했다면, 유사점을 뽑아내고 차이점과 나란히 배열시키는 (그러니까 필자가 위에서 한) 작업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만약 조선과 중국을 모두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다. 조선인들은 중국인들처럼 옷을 입지도 않고, 그들처럼 보이지도, 말하지도, 일하지도, 놀지도, 먹지도, 교류하지도 않는다. 가장 크고, 명확한 사실은 조선인은 일본인도, 중국인도 아닌 그냥 조선인이다. (Homer Hulbert, "Korean Survivals," 1900, pp. 41-42.)

구체적인 귀납적 근거를 나열한 후, 험버트는 자신의 논지를 결론짓는다. 한마디로 조선은 중국과 다른 민족, 다른 문화라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의 결론이다.

한편 텍스트 분석의 마지막 예로 주관적 관점을 보인 저자 가운데 서구인이 아닌 낯선 인물에 주목하게 된다, 그는 당시 'Seoul Press'의 편집자였던 일본인 아이 야마가타(山県 愛)이다. 그 역시 전형적으로 자신의 나라 일본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 그만의 주관적 입장으로 조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저자 야마가타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우호적 관계의 회복을 희망적 어조로 환기시킨다. 'Seoul Press'는 그 당시 조선에서 발행이 허용되었던 단 하나의 영자신문으로 그의 역할은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의 일상적 사건들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우선 그의 텍스트에서는 임진왜란 등, 조선과 일본의 갈등 상황이 언급되어 있고, 일정부분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도 발견된다. 다만 조선과 일본의 우호적 관계를 가로막는 존재로 중국을 지목하는 점은 일본인인 논문 저자의 정치·사회적 입장과 텍스트 사이의 미묘한 상관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의 전쟁 후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당연히 적대관계가 되었다. 조선은 일본을 적으로 여기게 된다. 히데요시 사후 권력을 차지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평화를 되찾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는 조선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되찾길 희망했다. 그는 조선과의 우호적 관계를 목적으로 쓰시마 봉건주를 교육시켰는데, 이것은 쓰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었다. 일본의 침공 후 조선과의 무역 등을 담당했던 쓰시마가 조선 사람들의 적대심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599년에는 쓰시마에서 조선에 사신을 보냈는데, 그곳을 점령한 중국 군사들이 그들을 인질로 삼자, 조선정부는 일본이 침공 시 끌고 간 조선 인질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이후 쓰시마 정부는 몇몇 조선인들을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주인 행세를 하는 중국 군인들을 너무나도 몰아내고 싶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평화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었다. 1603년 조선은 진정 일본이 평화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으로 두 명의 사신을 보내게 된다. 이후 이에야스는 사신들의 요청을 받고, 마침내 조선 인질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다. (Yamagata, "Japanese-Korean Relation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16th Century," 1913, pp. 4-5.)

아래 자료들은 판단중지와 감정이입이라는 현상학적 담론구조를 활용하여 원자료 중 일부를 두 가지 형식으로 분류한 것이다. 개별 연구자의 태도와 지향점, 그리고 목적의식에 따라 가능한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 지식의 전달에 치중했던 연구결과물들이 존재하고, 역으로 주관

적 주장이 명확히 드러나는 논문들도 있다. 그러나 소위 객관적 주제의 논문주제들은 형식적으로는 사실의 서술에 치중하는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객관적 설명의 이면에 저자의 주장이나 목적의식, 선입견 따위가 작동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역으로 저자의 주장이 강하게 개진되는 논문의 경우에도 논지 전개과정에서 간혹 지나치게 주관적 개입이 발견되는 텍스트도 있지만, 통계, 분석, 유비추론 따위와 같이 논증과정에 합리적 장치를 나열함으로써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실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감춘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주관적 개입을 중지하고 판단중지의 태도를 보이는 저자의 입장과 달리 감정이입이 드러나는 주관적 관찰자의 텍스트라 해서 저자의 일방적 주장만이 나열되는 것은 아니었다. 모든 논문은 선택된 주제에 따라 일정한 형식구조로 서술되었고, 논지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의 서술은 거의 대부분의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텍스트에 필자의 일방적 주장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본래 저자가 의도한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다.

① 주로 객관적 사실(fact)을 소개하는 종류의 논문

- “CAPTAIN BASIL HALL’S ACCOUNT OF HIS VOYAGE TO THE WEST COAST OF COREA IN 1816” BY JAMES HUNTLEY GRAYS ON
- “ARBORETUM COREENSE” BY MARK NAPIER TROLLOPE, D. D. BISHOP IN COREA.
- “ECOLOGICAL STUDIES IN THE TONG-NAI RIVER BASIN, NORTHERN KOREA” BY RALPH GARFIELD MILLS, A. B., M. D.
- “THE DIAMOND MOUNTAIN” BY JAMES S. GALE.
- “SOME COMMON KOREAN FOODS” BY J. D. VAN BUSKIRK, M. D.
- “NATIONAL EXAMINATION IN KOREA” BY H. B. HULBERT, F. R. G. S. (READ BY JAMES. S. GALE).
- “POTTERY OF THE KORAL DYNASTY. (924-1392 A.D.)” BY A. L. LUDLOW, M. D.

- “A SHIPWRECK (KOREAN) IN 1636 A. D.” 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JAMES. S. GALE.
- “KOREAN ROADS PAST AND PRESENT” BY W. W. TAYLOR.
- “REPORT ON INVESTIGATIONS No. 2-JANUARY, 1924, DEVELOPMENT AND TREND OF THE AUTOMOTIVE TRANSPORTATION IN CHOSEN.”
- “OLD KOREAN BELLS. Beacon-Fires of Old Korea.” BY E. W. KOONS.
- “A ROYAL FUNERAL IN KOREA” BY HUGH MILLER
- “A PLEA FOR THE INVESTIGATION OF KOREAN MYTHS AND FOLKLORE” BY CECIL H. N. HODGES.
-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BY N. H. BOWMAN, M. D.
-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SEOUL, KOREA”
- “AFFORESTATION IN KOREA” REV. E. W. KOONS.
- “THE PAGODA OF SEOUL” BY JAMES S. GALE.
- “HUNTING AND HUNTERS’ LORE IN KOREA” BY HORACE H. UNDERWOOD.
- “GOLD MINING IN KOREA” EDWIN W. MILLS.
-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BUDDHISM IN COREA” BY THE RIGHT REV. MARK NAPLER TROLLOPE, D. D. BISHOP IN COREA.
- “COREAN COIN CHARMS AND AMULETS A SUPPLEMENT” BY FREDERICK STARR.
- “THE VEGETATION OF KOREA” BY ERNEST H. WILSON, M. A. ARNOLD ARBORETUM, (APPENDIX TO PROFESSOR WILSON’S LECTURE) “ARBORETUM COREENSE. BEING A PRELIMINARY CATALOGUE OF THE VERNACULAR NAMES OF FIFTY OF THE COMMONEST TREES AND SHRUBS FOUND IN CHOSEN.”
- “AN ACCOUNT OF THE SHIPWRECK OF A DUTCH VESSEL” BY HENDRIK HAMEL.
- “HAMEL’S JOURNAL AND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KOREA, 1653-1666" BY HENDRIK HAMEL.

- "THE CLIMATE OF KOREA, AND ITS PROBABLE EFFECT ON HUMAN EFFICIENCY" BY J. D. VAN BUSKIRK, M. D.
- "KANG-WHA" BY BISHOP MARK NAPLER TROLLOPE, D. D.
- "HAN-YANG (SEOUL)" BY REV. JAMES S. GALE, B. A.
- "KOREAN FOLK-TALES" BY H. B. HULBERT, ESQ., F. R. G. S.
- "THE CULTURE AND PREPARATION OF GINSENG IN KOREA" BY REV. C. T. COLLYER.
- "THE KOREAN ALPHABET" BY REV. JAMES S. GALE, D. D.
- "COINAGE OF OLD KOREA" BY M. ICHIHARA, PH. D.
- "MARRIAGE CUSTOMS OF KOREA" BY ARTHUR HYDE LAY.
- "KOREAN BOATS AND SHIPS" BY HORACE H. UNDERWOOD.
- "GLOSSARY AND KOREAN VOCABULARY OF NAUTICAL TERMS" BY ROYAL ASIATIC SOCIETY-KOREAN BRANCH
- "KOREAN WEAPONS AND ARMOR" BY JOHN L. BOOTS
- "DIARY OF A TRIP TO SUL-AL SAN" (VIA THE DIAMOND MOUNTAINS) 1923.
- "THE KOREAN RECORD ON CAPTAIN BASIL HALL'S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KOREA" BY L. GEORGE PAIK
- "INTRODUCTION TO THE "BIBLIOGRAPHIE COREENNE" BY MAURICE COURANT.
- "BOOK PRODUCTION AND PRINTING IN COREA" BY THE LATE BISHOP MARK NAPLER TROLLOPE, D. D.
- "ASTRONOMY IN KOREA" BY W. CARL RUFUS ANCIENT KOREAN ASTRONOMY.
- "FATHER GREGORIO DE CESPEDES" BY RALPH M. CORY.

② 필자의 주관적 의견(opinion)과 판단(judgment)이 강조되는 논문

- "KOREAN SURVIVALS" BY H. B. HULBERT, ESQ., F. R. G. S.
-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BY REV. JAMES S.

GALE, B. A.

- “JAPANESE-KOREAN RELATION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16th CENTURY” BY I YAMAGATA, EDITOR, SEOUL PRESS.
- “HAMEL’S JOURNAL: AND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COREA. 1653-1666” BY HENPRICK HAMEL.
- “SOME RECENT DISCOVERIES IN KOREAN TEMP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EARLY EASTERN CHRISTIANITY” BY E. A. GORDON.
- “THE OLD PEOPLE AND THE NEW GOVERNMENT” BY MIDORI KOMATSU, L. L. B., M. A. DIRECTOR OF FOREIGN AFFAIRS OF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 “ARCHBISHOP MUTEL A BIOGRAPHICAL SKETCH REPORT OF THE LIBRARIAN” TO THE FAV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MAY 31, 1937.
- “REPORT OF THE LIBRARIAN” TO THE RA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MAY 31, 1937.
- “CH’OE CH’I-WUN: HIS LIFE AND TIMES” BY REV. G. H. JONES, PH. D.

2. 인류학적 관찰자: 오리엔탈리즘의 개입

근대화 초기 문화를 설명하는 소위 실증 과학적 방식은 특정민족을 하나의 유(類)로 설정한 후 설명을 시도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인류학은 비교방법에 기반하며, 그 목적은 인간사회에 대한 일반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었다.²⁴⁾ 나아가 민족을 연구하는 인류학 분야에서 문화를 설명하는 기능주의와 상징주의 양자 모두는 환원주의적 한계를 가진 것으로 서술할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 거의 모든 서구의 학문이 그러했듯 인류학도 서구의 식민지배 이데올로기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학문분야 중 하나다. 특별히 사회과학은 인류학자들에게

24) 제리 무어 저, 김우영 역, 『인류학의 거장들』(한길사, 2002), 251쪽.

타자(the other)에 관한 지식축적과 관련하여 타자의 특질과 독특성을 경험적으로 예증하고 이론적으로 조명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이 같은 요구는 단지 인류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사(精神史)적으로 계몽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지식체계, 이른바 고전 학문분야와 비교해 신생학문이라 할 수 있는 정치·사회·경제·인류·종교학 등은 제국주의 확장과 유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²⁵⁾ 특정사회에 관한 인류학의 연구방법론은 가족·친족·혼인·법·예술·신앙·가치관·세계관 등 비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구·기술 등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하여 수많은 부분이 하나의 전체(a whole)로서의 문화를 구성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이 자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로서 개별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체계(culture system)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²⁶⁾



그림1-Past(과거)

출처: W. W. Taylor, "Korean Roads Past and Present,"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15(1924), p. 34.

인류학의 연구방법론은 기본적으로 타자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한다. 인류학은 특정사회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과 달리 조선인과 조선사회의 해석을 시도했던 외부의 타자는 형식적으로 인류학적 모형을 채택하는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필자 개인의 의견과 판단이 공공연히 반영되곤 했다.

표1은 우리 식(食)문화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자료다. 제국주의 시기 서구의 지식체계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서구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곤 했다. 그런데 조선을 대상으로 주로 서구인들에 의해 실행된 인류학적 분석을 순수한 학문적 의도로만 간주할 수는

25) 더불어 순수한 과학적 연구방식을 추구하고, 사회적 현상에 가치판단을 유보하는 생물학, 지리학, 지질학, 의학 등 자연과학분야 역시 제국주의의 확대과정에서 주요 협력자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26) 문화체계 속에 존재하는 부분, 즉 문화요소들은 단지 무작위(無作爲)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인류학의 분석방법이다.

표1-Korean Method of Preparing Foods

Cereals	
Rice	밥
Barley	pori-pap 보리밥
Millet	cho-pap 조밥
Rice mixed with peas or beans	pat-pap or kong-pap 팻밥, 콩밥
Gruels	chook or mium 죽, 미음
Steamed Bread	dawk 떡
Dumplings	wul-pyung 월병
Vermicelli	kook-soo 국수
Bean and Pea Foods	
Bean Curd	tu-bu 두부
	pi-chi 비지
Pea Curd	mook 묵
Bean Sauce	kan-chang 간장
	mei-ju 메주
	toin-chang 된장
	ko-cho-chang 고초장
Kong-cha-ban	콩자반
Sprouted beans	kong-na-mul 콩나물
Pea-pancakes	nok-tu-chun pyun 녹두전번
Chi-jim	chi-jim 지짐

출처: J. D. Van Buskirk, "Some common Korean Food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14(1923), pp. 3-7.

없다. 타 문화의 언어, 통과의례, 식문화, 특수성, 민족지 등의 습득은 기본적으로 인류학적 패러다임(paradigm)이며 이것은 당시 제국주의국가들이 식민지 확장과정에서 피식민지의 원활한 지배를 위해 인류학자들을 동원하여 피식민지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수집한 방식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림1에서 상기 논문저자는 낫선 안장을 엮은 채 갓을 쓰고 긴 담뱃대를 물고 있는 나귀 주인을 'past', '과거'로 지칭하고 있다. 그림1 속의 인물이 착용하고 있는 것은 '흑립(黑笠)'으로 조선시대 사대부나 일반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던 '갓'의 일종이다. 이러한 형태의 복식은 당시 조선을 방문한 이들이 빈번하게 마주쳤을 보통 '조선인'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관찰자는 그가 마주친 조선인이 분명 자신과 같은

동시대(contemporary)를 살아가고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피관찰 대상을 과감히 자신의 인식기준(epistemology)을 적용하여 별다른 고민 없이 ‘과거(the past)’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는 타자의 오리엔탈리즘이다.

Ⅲ. 텍스트 해석의 차이, 조선과 타자 그리고 근대적 담론 체계로의 편입

우리가 원했던 근대성과 타자의 근대성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했다. 타자들이 조선에 이식(移植)하길 희망했던 근대성, 달리 말해 ‘타자적 욕망’은 텍스트에 그들의 언어로 재현되었다. 그리고 타자의 담론에는 다양한 목적의식이 개입되어 있다. 조선을 문화와 예술을 숭상하는 긍정적 국가로 묘사하는가 하면, 역으로 미개한 조선을 비판하고, 오직 조선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 몰두한 이들도 존재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로 조선을 재현한 동기와 상관없이 타자를 통해 조선은 비로소 외부세계에 그 실체가 알려진다. 만약 이들의 개인적 관심과 전달의 매개가 없었다면, 중국의 속국 조선에서 대조선(大朝鮮)으로, 이어서 일본의 피식민국으로 전락한 우리의 정체성은 상당 기간 외부와 단절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선을 관찰한 타자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조선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분석했다. 관찰자, 타자들에게 조선은 피(被)관찰 대상이었다. 타자의 시각으로 조선을 관찰한 외부인들의 정체는 선교사, 상인, 외교관, 군인, 의사, 기술자, 학자, 여행객, 서양남성, 서양여성 등 실로 다양한데, 각자 정체성과 출신 문화의 배경, 그리고 조선에 대해 이들이 가졌던 태도와 가치관 및 지향점에 따라 이들이 포착하고 해석한 조선의 모습은 지극히 산만하고 광범위했다.

오늘의 우리는 타자의 눈을 통해 우리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를 발견하게 된다. 타자의 선택에 따라 수없이 많은 ‘조선’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사이 근대화는 우리를 통과해 지나갔다. 조선에 대한 ‘이방인’들(일본과 중국을 포함한)의 해석은 다층적이고 동시에

자의적이었다. 때로는 전근대적 비문명 사회로 조선을 인식하는가 하면, 신기함으로 표상되는 조선이 있고, 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경이로움으로 재현되는 조선도 있었다.

일부 타자들은 조선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그들에게 조선은 계몽이 절실한 미개한 나라였다. 그러나 실제 조선은 지배자의 '글', '한자(漢字)와 백성의 '한글'이 병존하며 배움을 중시하고, 유학을 정치의 근본원리로 숭상하는 문인(文人), 즉 선비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였다. 또한 그들에게 조선은 유약한 나라였다.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외세의 침략을 번번이 막아내며 끝내 독자적으로 살아온 나라가 다름 아닌 약소국 조선이었다. 한마디로 당시 타자들이 가진 조선에 대한 이미지는 파편적(fragmentary)이었다. 이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했다. 조선을 소개하는 그들의 글에는 적지 않은 오역(誤譯)의 한계, 개인적 선입견이 개입된 제3의 해석이 발견되곤 한다. 동시에 현상학적 태도로 판단중지와 감정이 입이 상호교차하며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뚜렷한 기준 없이 시도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조선에 대한 이들의 해석은 다소 무질서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일관적이다. 물론 이 같은 비연속성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조선은 '외부의 시선'이 읽어내려 했지만, 끝내 읽을 수 없었던 사회(문화)였을 수도 있다. 더불어 그들이 바라본 조선은 그들의 '욕망'이 재현된 조선이기도 했다. 그들의 욕망은 다양했다. 조선에서 오리엔탈리즘의 이국적(exotic) 풍습을 기대하는가 하면, 야생호랑이와 조선의 매사냥을 통해 그들의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들, 금을 찾아 조선의 변방 운산금광을 찾아온 투기꾼, 조선의 계몽과 기독교 왕국 조선을 꿈꾸었던 선교사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 분명 물리적으로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자들에게 조선은 자신의 욕망 내지 이상을 실현해야 할 '빈 공간'이었을 수 있다.²⁷⁾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우리가 당연시하는 우리의 모습과 정체성, 우리의 이미지는 실제 그 대상과 사유(思惟)가 분명 일치하는 것일까?

27) 공간은 보편화된 서구를 뜻하며, 시간은 현대의 자본주의적 일시성을 뜻한다. 서구를 제외한 국가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서 모두 배제된다. Biray Kolluoglu-Kirli(2003), 앞의 논문, 95쪽.

우리가 진정 한(限)의 민족인가? 평화를 갈구하는 민족이기에 우리는 줄곧 전쟁을 회피했는가? 화려한 색에 거부감이 있어 줄곧 흰색 옷만 고집한 것인가? ‘하얀 옷’을 즐겨 입는다는 백의민족(白衣民族)은 본래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진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후일 우리는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본래 우리 것인 양 별다른 고민 없이 사용하게 된다. 나아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백의민족의 ‘흰색’은 언제부턴가 ‘조선의 백자(白瓷)’와 연결되어 우리의 ‘멋’과 ‘색(色)’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제3의 담론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또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은둔의 나라’로 우리를 설명하는 한정(限定)어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 술어(述語), 즉 무수한 형용사와 고유명사의 편린(片鱗)이 거의 보통명사화되어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실제 그런 민족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으로 규정된 후, 특정 이미지로 고정되고, 우리 내부의 담론으로 재생산되어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어진, 낯설지만 그럴 듯한 ‘거짓말’들, 즉 우리를 둘러싼 신화는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관습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보존과 계승으로 설명되는 ‘전통’이라는 담론권력에 의존해 우리를 제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우리를 만들어 왔다기보다 타자의 말과 생각에 의존해 우리 자신의 고유함, 즉 우리의 정체성을 지극히 수동적으로 만들어왔다. 현재 우리가 당연시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으레 우리의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른바 근대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타자의 시선을 통해 과거와의 단절, 그 낯선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신표,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적 민족지』. 세창출판사, 2014.
- 김귀원, 『구한말 프랑스문헌에서 군인 및 외교관이 본 조선의 이미지』. 조선프랑스학회, 2004.
- 김보림, 『개항기 재조선 서양인의 일상생활과 조선문화 인식의 변화』. 역사교육연구회, 2013.
- 권수현, 『문화철학과 자율성』. 철학과 현실사, 2008.
- 유홍립, 『테리다 읽기』. 문학과 지성사, 2002.
- 이광규, 『새로운 민족관의 수립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정상수, 『제국주의』. 책세상, 2009.
- 철학아카데미 편,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철학』. 동녘, 2013.
- 최종천, 『탈식민주의 문화 이론의 해체론적 접근: 바바와 테리다를 중심으로』. 범한철학회, 2011.

- Childs, Peter and Williams, Patrick, *An introduction to post-colonial theory* 325. London: Prentice Hall/Harvester Wheatsheaf, 1997; 피터 차일즈 · 패트릭 윌리엄스 저, 김문환 역,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 Foucault, Michel, *Maladie mentale et psychologie*, PUF, 1954; 미셸 푸코 저, 박혜영 역, 『정신병과 심리학』. 문학동네, 2002.
- Foucault, Michel and Sheridan, Alan, *The Archeology of Knowledge*. New York: Pantheon Books, 1969.
- Moore, Jerry D., *Visions of Culture: An Introduction to Anthropological Theories & Theorists*, Walnut Creek, California: AltaMira Press, 1996; 제리 무어 저, 김우영 역, 『인류학의 거장들: 인물로 읽는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한길사, 2002.

2. 논문

- 김교빈, 「동아시아 근대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시대와 철학』 제21권 제4호, 2010, 69-97쪽.
- 이순예, 「근대성, 합리와 비합리성의 변증법」. 『담론 201』 제13권 제1호, 2010, 5-33쪽.

A Sister of the C.S.P., "Some Wayside Flowers of Central Korea." *Transactions*

-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Vol. 18, 1929, pp. 22-82.
- Cable, E. M., "The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1866-1871."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eoul: Y.M.C.A. Press, Vol. 28, 1938, pp. 1-229.
- GALE, JAMES S., "The Korean Alphabet."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Yokohama: The Fukuin Printing Co., Ltd, Vol. 4 Part 1, 1912, pp. 37-67.
- Hunt, Charles, "Some Pictures and Painters of C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19, Seoul: Y.M.C.A. Press, 1930, pp. 1-34.
- Hulbert, Homer, "Korean Survivals."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1 Part 1, Yokohama: The Fukuin Printing Co., Ltd, 1900, pp. 25-50.
- Kolluoglu-Kirli, Biray, "From Orientalism to Area Studies." *The New Centennial Review*, Vol. 3. 3.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03, pp. 93-111.
- McCune, G. M. and E. O. Reischauer,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Transacit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29, Seoul: Y.M.C.A. Press, 1939, pp. 1-55.
- Noble, Harold J., "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1883."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18,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29, pp. 1-21.
- Taylor, W. W., "Korean Roads Past and Present."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15, 1924, pp. 33-56.
- Underwood, Horace H.,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20, Seoul: Y.M.C.A. Press, 1931, pp. 1-16.
- Underwood, Horace H., "Korean Boats and Ship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23, Seoul: Y.M.C.A. Press, 1934, pp. 5-84.
- Van Buskirk, J. D., "Some common Korean Food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14,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23, pp. 1-62.
- Yamagata, "Japanese-Korean Relation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in the 16th Century."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4 Part II, Yokohama: The Fukuin Printing Co.,

Ltd., 1913, pp. 1-11.

3. 기타 자료

영국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Homer Hulbert Biography」. 2013년 2월 13일,
(raskb.com/blog/2013/02/13/homer-hulbert-biography(검색일: 2017년 9월))
영국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The RASKB Returns to Life: 1911」. 2012년 8월
30일, raskb.com/blog/2012/08/30/raskb-returns-life-1911(검색일: 2017년
9월).

국 문 초 록

타자에 의해 기획되고 서술된 텍스트는 과거 '우리의 것'을 타자의 관점으로 관찰하고 분류한 후 범주화했다. 이 과정에서 판단중지(epoche)와 감정이입(empathy), 즉 현상학적 패러다임이 활용되었으며, 개입된 이데올로기(ideology)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다. 외교, 선교, 사업, 탐험 등 상이한 방문목적에 따라 한국을 찾아온 타자의 경험이 텍스트를 형성한 후 한국에 관한 지식(knowledge)이 서서히 축적(蓄積)되었다. 그러나 조선을 관찰했던 외부의 관찰자들은 물론 당시 조선인들에 비해 근대화에 대한 경험의 밀도(density)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이들 또한 조선을 보편문화담론이나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외부관찰자들은 주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자 했고, 관심이 있는 것에만 집중했다. 결국 한국에 대한 타자의 이미지는 시종일관 비 일관적이고 파편적(fragmentary)이었다. 때로는 전근대적 비문명 사회로 조선을 인식하는가 하면, 신기함으로 표상되는 조선이 있고, 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경이로움으로 재현되는 조선도 있었다. 결국 조선에 대한 이방인들(일본과 중국을 포함한)의 해석은 다층적이고 동시에 자의적이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자들에게 조선은 자신의 욕망 내지 이상을 실현해야 할 '빈 공간'이었을 수 있다.

타자의 선택에 따라 수없이 많은 '조선(한국)'의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도리어 오늘의 우리는 타자의 '시선'을 통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를 발견하고 있다. 결국 타자가 한국에 이식(移植)하길 희망했던 근대성(modernity), 달리 말해 '타자적 욕망'은 그들의 언어로 재현되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연시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으레 '우리의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근대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타자의 시선을 통해 그 낯선 '우리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있다.

투고일 2017. 9. 26.

심사일 2017. 9. 29.

게재 확정일 2017. 11. 27.

주제어(keyword) 관찰자(observer),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감정이입(empathy), 판단중지(epoche), 이미지(image), 근대(Modernity)

Abstracts

The Analysis of Hidden Intent behind the Text of Western Observers on the Basis of the Study Result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Kim, Shin

The text designed and described by the other in the past observed, categorized, and viewed 'our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Epoche and empathy characteristic of phenomenological paradigms, were utilized, and orientalism was involved in this interpretive process.

The knowledge of Korea formed the text after the experiences of others who came to Korea for different diplomatic, missionary, business, and expeditionary purposes were accumulated. However, the density of their experience of modernization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the people of Joseon at the time, but they did not reach the level of analyzing the Joseon dynasty from modes of universal cultural discourse or structurally. Outside observers mainly wanted to see what they wanted to see and focused only on what they were interested in.

Ultimately, the image of Korea in the eyes of the other is consistently incoherent and fragmentary. Sometimes Joseon was viewed as a pre-modern, non-civilized society. Sometimes, Joseon was depicted as a miraculous sign. It was reproduced as a wonder they did not come across. The others' interpretations of Joseon (including Japan's and China's) are multi-layered and arbitrary. Even though Joseon people already physically lived there, Joseon could have been an 'empty space' for realizing their desires or ideals.

Depending on the choice of the other, a plethora of images of 'Joseon (Korea)' were made. Ironically, we are discovering our past through the 'gaze of the other'. In the end, the modernity which the other hoped to transplant in Korea was reproduced in their language and in other words, through 'the desire of the other.' Still we are looking at our past which is foreign even to ourselves through the other's eyes to understand how our identity has been formed and how we take for granted what is believed to be 'ours'.